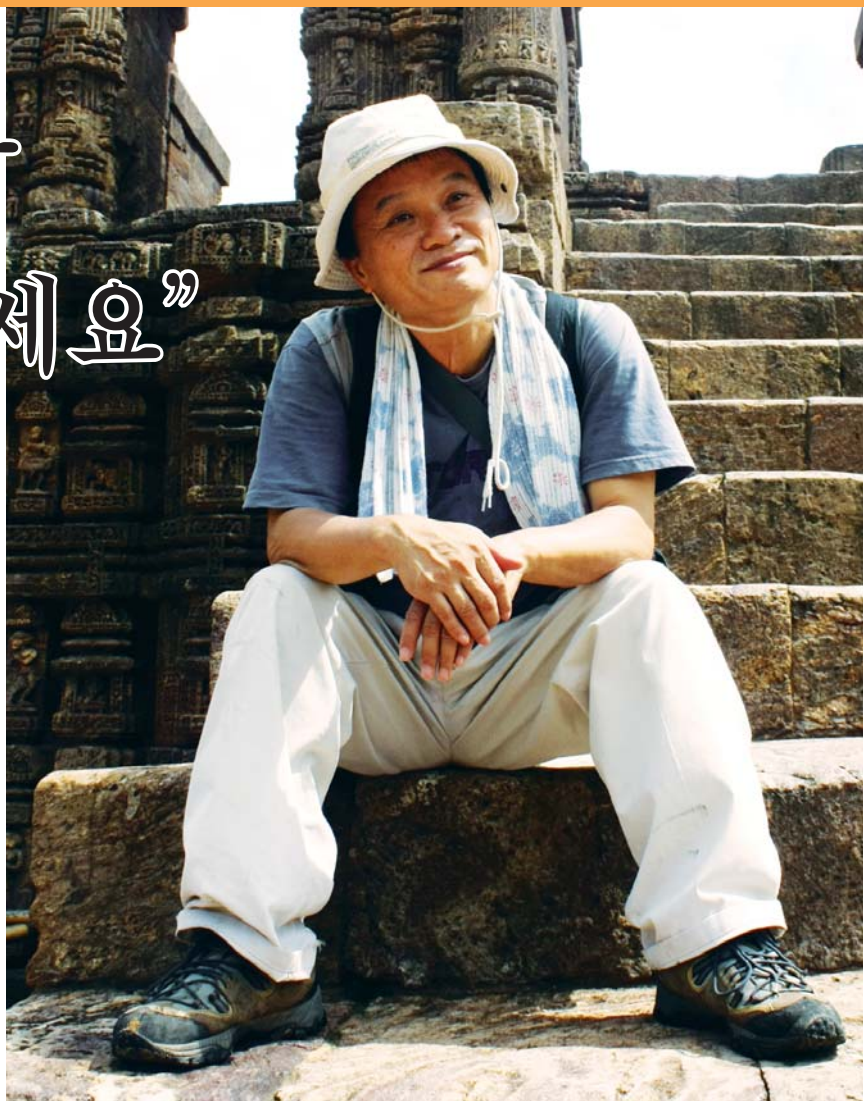


■ 인도체류 2년...산문집 '우리가 사랑한 1초들'로 돌아온 광재구 시인

# “일상이 기적이자 행복 당신결 1초를 사랑하세요”



인도 여행 중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광재구 시인.

‘사평역에서’의 시인 광재구(57·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돌아왔다. 2000년대 최고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포구기행’ 이후 시인은 잠시 주춤했던 듯 했다.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는 문예지에 가끔 편지 형식의 글을 내기도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예전의 그와 같지는 않았다. 2009년 7월, 광 시인은 대학에서의 문학 강의를 잠시 멈추고 타고르의 고향인 산티니케탄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지난해 12월까지 540일을 머물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했다. 시인에게 그것은 “문청 시절부터 영원했

던 오래 묵힌 마음의 여행”이었다. 벵골어를 익혀 타고르의 시편들을 직접 한국어로 번역해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여정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이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며 “내 삶이 지난 1초 1초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1년 반의 인도 여행 후 바람과 나무 꽃향기 풀풀 나는 산문집 ‘우리가 사랑한 1초들’(불 펄냄)을 들고 우리 곁에 돌아온 광 시인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산문집은 ‘필연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했는데 무얼 담았나. ▲광재구라는 시인이 꿈꾼 보편적인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청시절 나는 타고르의 시를 좋아했고 언젠가 그가 만든 이상향인 산티니케탄의 ‘아마르 푸페르’(나의 오두막집)에 들러 그의 시들을 벵골어로 직접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무살 무렵 나의 꿈은 하루 8만 6400초를 모두 직접 느끼고 싶은 것이었지요. 어떤 1초는 무슨 꿈을 꾸고 어떤 1

다는 것이었습니다. -타고르의 고향에서 무얼 찾았나. ▲가난하지만 신을 받들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지만 실제로는 소보다 소똥을 더 신성시합니다. 멸종이나 축제 때면 이들은 집 안팎과 방안에 소똥 반죽을 바릅니다. 그래야 사악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도 마지막 치료방법이 주사기에 소똥을 넣어 주사하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가난하지만 한없이 맑고 평화로운 적빈(寂貧)의 삶, 그곳에 행복의 원형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산문집에 ‘부겐빌레야’라는 시가 있던데, 시도 썼나. ▲시 쓰기는 나의 본업이지요. 시를 쓰는 동안 나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적빈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다음에 낼 시집의 제목이 ‘적빈 寂貧-와운에서 산티니케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작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타고르 고향서 540일 행복의 원형질 발견”

초는 어떤 사람에 빠졌으며 어떤 1초는 어떤 슬픔을 지니고 있는지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쓴 거죠. -인도에서의 540일은 어땠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산티니케탄의 일상은 매우 무덤덤하고 가난합니다. 4, 5월의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보편적인 여름날의 온도는 48도 전후입니다. 음식 또한 지극히 적어 감자와 몇몇 야채, 달걀 정도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것이었지요. 글을 쓰지 않는다면 무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지만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일은 없

지난 70~80년대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진보를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가슴 안에 화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든 가치척도의 한가운데 자본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는 때문이지요. 내가 지난 산티니케

## “글쓰기는 나의 본업 가을엔 시집 펴낼 것”

탄에서의 인사말 중 가장 흔한 돌은 노모스카와 자이구루입니다. 노모스카는 힌디어의 나마스떼와 같은 뜻인데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영혼을 또한 사랑한다는 뜻이고 자이구루는 너의 스승이 누구시냐?는 뜻이지요 누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쳤는가? 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 되세요’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열망, 무한대의 소비는 인간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이기 참새 찌꾸’ 등 동화 작품도 많이 냈는데 동화도 계속 쓸 건가.

▲동화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시가 인간 내면의 창을 깊게 응시하는 장르라면 동화는 인간이 지닌 신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장르입니다. 제가 시를 쓰는 한 동화 쓰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교수로 돌아왔다. 앞으로 계획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은 24시간을 온전히 창작에 쓸 수 없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쓴다 해도 그것이 좋은 창작품이 될 가능성은 낮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에서의 1년 반은 온전히 글에 바칠 수 있어서 저에게 몹시 행복한 시간들이었지요. 계획했던 대로 벵골어 공부를 더 해 타고르의 시를 번역해 나가야죠. 가을엔 시집도 낼 겁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재구 시인은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 ‘사평역에서’ ‘서울 세노야’ ‘잠 맑은 물살’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기행산문집 ‘포구기행’ ‘예술기행-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동화집 ‘이기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등을 썼다. 신동엽 창작기금과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 나무·돌·금속, 작품이 되기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내달 3~10일 ‘움직이는 예술마을’展

시골 마을의 그림 같은 미술관, 고흥 남포 미술관은 오는 8월 3일~10월 2일 국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과 실제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움직이는 예술마을’展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박선기·박승모·성동훈·이길래·이재효·정광식·최태훈씨 등이 참여해 나무, 돌, 금속 등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조각품을 선보인다. 특히 오는 8월 2일~6일에는 이 미술관 야외 전시장에서 참여 작가들의 작품 구상부터 설치까지의 모든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 기간 참여 작가들이 미술관에 머물며 주변의 돌과 나무, 폐목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이용해 개성 넘치는 현장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이재효 작 '0121-1110=111053'  
또 드로잉 작업과 참여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의 061-832-0003.

## 전남도 민속조사보고서 7권 발간

민속박물관, 9개월간 목포·장흥·영광 민속문화 답아

전남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은 전남의 민속 문화를 정리한 민속조사보고서 7권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속박물관 연구진이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목포와 장흥, 영광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발간한 것으로, ▲영광군 범성포 ▲오정향 대 살림살이 ▲장흥 칠리안속 상금마을 ▲백근·운영남대 살림살이 ▲항구도시 유달동·만호동 ▲북포 만호동 아리내 살림살이 등 6권에 세 지역의 민속과 살림살이, 전남

의 민속문화를 담았다. 또 남도 방송사와 가내수공업, 잔치음식 등을 담은 전남의 민속 문화도 함께 발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민속과 살림살이 조사보고서는 현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자료로 훗날 민속문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사보고서를 시·군립 도서관과 대학 등에 배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희기자 dok2000@

## ‘8월의 입을 만한 책’ 10종 선정

김이슬 ‘환영’ 조홍섭 ‘한반도 자연사 기행’ 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1년도 8월의 입을 만한 책'으로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글항아리 펄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8월의 입을 만한 책'으로는 하종민 여성의 삶과 의지와 욕망을 집요하게 추적해 병정하게 묘사한 김이슬의 소설 '환영'(자음과모음 펄냄), 환경 전문 기자 조홍섭씨가 우리 땅 곳곳을 누비며 한반도의 지형과 지질을 탐구하여 얻은 우리 땅 안에서 '한반도 자연사 기행'(한겨레출판 펄냄) 등이 선정 되었

다. 이밖에 '축구를 신은 소크라테스', '달라 이 라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반도 자연사 기행', '시네마 온더로드', '팻', '아주 특별한 바다여행' 등도 포함됐다. 분야별 선정도서목록과 위원들의 추천사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의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p><b>상무점</b></p> <p>1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p> <p>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 (12세)</p> <p>3관 퀵 (15세)</p> <p>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p> <p>5관 마당을나온암탉 / 퀵 (15세)</p> <p>6관 트랜스포머3 (12세)</p> <p>7관 고지전 (15세)</p> <p>8관 고지전 (15세)</p> <p>9관 씨니 (15세)</p> <p>10관 카2 / 극장판 도라에몽 (전체)</p> <p>리뷰얼 오엔기념 BIG EVENT 5000원 상영의 경품행사 달라진 콜롬버스시네마를 소개하면 행운의 경품이 발송</p> <p>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p> <p>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p>	<p><b>하남점</b></p> <p>1관 고지전 (15세)</p> <p>2관 리오 (전체)</p> <p>3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p> <p>4관 퀵 (15세)</p> <p>5관 트랜스포머3 (12세)</p> <p>6관 극장판 도라에몽 (전체)</p> <p>7관 고지전 (15세)</p> <p>8관 마당을 나온 암탉 (전체) / 씨니 (15세)</p> <p>9관 퀵 (15세) / 바니버디 (전체)</p> <p>10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 리오 (전체)</p> <p>11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 카2 (전체)</p>	<p><b>MEGABOX</b></p> <p>M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최고급관</p> <p>2관 고지전 (15세)</p> <p>3관 고양야-죽음을보는두개의눈 (18세)</p> <p>4관 트랜스포머3 (12세)</p> <p>5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p> <p>6관 극장판 도라에몽 (전체) / 고지전 (15세)</p> <p>7관 퀵 (15세)</p> <p>8관 리오 (전체) /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p> <p>9관 고지전 (15세)</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지터워, 황금주지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p>	<p><b>CINUS</b></p> <p>1관 퀵 (15세)</p> <p>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3 (12세)</p> <p>3관 마당을나온암탉 (전체) / 고지전 (15세)</p> <p>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p> <p>5관 씨니 (15세) / 카2 (전체)</p> <p>6관 리오 (전체)</p> <p>7관 고지전 (15세)</p> <p>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p>
---	---	---	--